



2011. 3. 1.

섬김과 희생

말씀 : 김삼환 목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요 10:7-15)

2011년 3월 특별새벽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금번 특별새벽집회의 주제는 '섬김과 희생'입니다. 이 주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우리 인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막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9: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와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하였을 때 소나 양을 잡아 그의 피로 죽을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레 4:2-6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 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② 로마시대의 노예들은 국가에 큰 공을 세우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공로가 있을 때 로마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요 8: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갈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지워 온 인류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일 2: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①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②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죄인이 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롬 5: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③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의 공로로 우리 모두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 3:13-1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④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낮아짐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⑤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의 죽음과 저주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실패, 불행, 근심, 걱정).

롬 5: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⑥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존귀한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 53: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⑦ 하나님의 아들이 아픈 가시관을 쓰심으로 모든 일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벧전 2:24-25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⑧ 하나님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심으로 슬피 후회하는 눈물이 떠나가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는 일이 없고, 그가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인간에게 오는 모든 저주는 그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가치 있고 보람되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만족하며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조시 해밀턴(Josh H. Hamilton)은 1999년 18세에 전 미국 1순위로 탬파베이에 지명되어 계약금만 396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최고의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13홈런, 62타점). 그러나 2002년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18개월 동안 후유증으로 아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통증을 이기고자 알코올, 마약 중독자와 사귀면서 코카인에 중독되었고 온몸은 26개의 문신으로 뒤덮였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메이저 리그에서도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8번의 재활 교육도 소용없었고, 11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5년 10월 6일, 그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모두에게 버림받고 소망이 없는 해밀턴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비참하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 버려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주는 떠나갑니다.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였습니다. 그는 2008년 텍사스 팀에서 야구 방망이에 'Dream' (꿈)이란 글씨를 새기고 폭발적인 타격을 펼치며 4번 타자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는 32개의 홈런과 3할 4리 타율로 모든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돌아왔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2010년 텍사스 팀은 해밀턴의 활약으로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하였고, 창단 60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타격 1위, 장타율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디비전 시리즈 진출이 확정되었을 때 삼페인 파티에 나가지 않았습니 다. 모두 술을 머리에 붓고 옷에 뿌릴 때 그는 입가에 술을 한 방울도 묻히지 않으려고 파티에 나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혼자 트레이너실에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지난 해 챔피언이었던 뉴욕 양키즈를 상대로 홈런 4개를 날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어 MVP까지 올랐습니다. 축하파티에서 모든 선수들은 해밀턴을 위해 삼페인 대신 콜라를 부으며 너무나 감격스러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금년(2011년)에 해밀턴은 2,400만 달러로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발걸음! 한순간에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

인간의 문제는 어떤 지식, 과학, 권력, 물질, 노력으로도, 어떤 종교나 어떤 문화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